

프랑스의 도서진흥과 해외번역 지원

佛문화성 도서독서국장 가테뉴씨 강연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프랑스는 과연 어떤 도서진흥정책을 펴나가고 있을까?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 초청으로 내한한 프랑스 문화성 도서 및 독서국장 장 가테뉴씨는, 지난 3월24일 협회강당에서 '프랑스의 도서진흥정책과 해외번역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고 프랑스 문화성의 각종 도서진흥사업을 소개해 출판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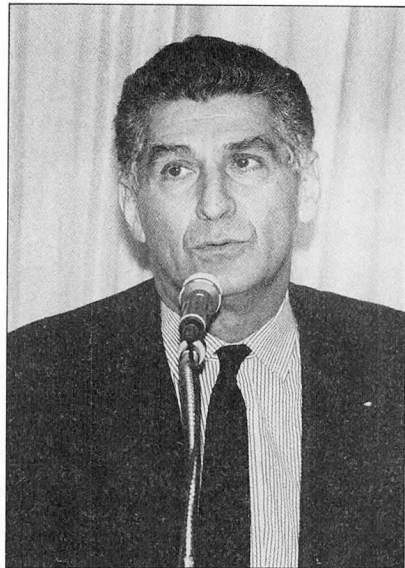
프랑스 문화성 내에 도서·독서국이 설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전인 1976년도의 일이다. 가테뉴씨에 따르면, 애당초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기능확대를 넓히려는 당시의 대대적인 운동에 힘입어 탄생됐으나, 현재 보다 넓은 의미에서 책의 문화창조역할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로 기능하고 있다.

“출판은 전적으로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서국으로서 어디까지나 출판업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가테뉴씨의 말처럼, 프랑스가 정부차원에서 행하는 도서정책은 출판계를 앞서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으로 후원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도서진흥 위해 도서관·서점 육성

도서국의 도서진흥정책은 크게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으로 구분된다. 우선 국내정책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도서관진흥정책을 꼽을 수 있다. 80년대초까지만 해도 영국·독일·덴마크의 공공도서관 기능에 비해서 프랑스의 그것은 상당히 저조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는 것이 가테뉴씨의 설명이다. 지난 86년부터는 공공도서관의 관할이 시청 고유의 업무로 개편되었는데, 韓貨로 4천억원에 이르는 도서관건립기금을 문화성이 보조하는 형태로 간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서적유통에 관한 정책수립도 도서국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 도심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의류업·요식업 등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에 밀려 특색있는 중소서점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번두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 상품순환 속도가 빠른 대형서점 특유의 판매유통형식으로 인해 아무리 무거운 작품이라도 독자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곧 자취를 감추어야 하는 현상은 프랑스 서점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시장법칙의 가



프랑스 문화성 도서·독서국장 가테뉴씨는 출판문화회관에서 강연회를 갖고 프랑스의 도서진흥정책 전반을 소개했다.

혹한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도서국은 지난 81년부터 도서단일정가제를 실시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덤핑으로 입을 중소서점과 출판사들의 불이익을 막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서점인 상호출자협회같은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있는데, 도서국에서는 5년전부터 서점경영의 전산화와 도서운송 합리화부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오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출판사와 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조세 및 법률환경의 질적인 개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작권·부가가치세·복제권·가격개혁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커다란 난관에 부딪힌 우량출판사를 위해 도서국이 예외적으로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테뉴씨는 전했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앞장

가테뉴씨의 이날 강연에서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도서국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정책이었는데, 해외 신시장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답사나 판권전시회개최, 저작권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정책수립, 도서수출의 적극화를 위한 재정적 보조, 불어서적의 외국어번역 장려정책 등이 소개됐다.

그중 번역장려정책은 번역료 지원과 번역가 장학금지급으로 나뉘는데, 번역료 지원의 경우 특정 작품에 대한 번역출판계약을 맺은 제3국의 출판사가 판권사인 프랑스 출판사를 통해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번역

료의 30%에서부터 70%에 이르는 금액을 출판사에 보조하고 있다. 번역가 장학금은 외국인 번역가들이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좋은 작품을 번역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해주는 제도로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서류가 제출되면 역시 심사를 거쳐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번역가 개인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88년도 기준 매월 평균지급액 9천프랑). 해마다 20건씩의 번역료 지원과 장학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북미권보다는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치

중하고 있다고.

프랑스 문화성 도서·독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육성하고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조직적이며 구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에리 기자

화제의 책

사진으로 보는 50년대 북한사회

크리스 마커의 「북녘사람들」

출판매체에 사진이나 영화제작기법을 도입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프랑스 영화작가 크리스 마커의 「북녘사람들」(원제 「조선의 여인들」)이 우리말로 옮겨졌다. 원저는 프랑스 굴지의 출판사 세이유사가 1959년 「단편영화」라는 영상기획출판의 첫째권으로 발간한 책.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50년대 후반의 북한과 그곳에서의 사람살이를 담은 140여점의 흑백사진 및 짧은 기행문들을 함께 실었는데, 특히 사람들의 '표정'을 인상적으로 포착, 이즈음 봄을 이루는 일련의 북한 화보류와 좋은 대조가 된다. "전쟁이 남긴 폐허와 이제 막 새로이 건설되는 건물들이 서로 미완인 채로 한순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중의 배경" 속에서 삶을 일구는 북한주민의 모습이 생생한 현장감으로 재현돼 있다.

예컨대, 아코디온 반주에 맞춘 야유회에서의 群舞, 활터의 노인들, 농수버들 아래서의 그네뛰기, 심청전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젊은 여인의 모습 등이 있는가 하면, 물린 눈에 버려진 탱크의 잔해, 군사분계선 푼말 위에 내려앉은 비둘기, 빈 들녘에 동생을 업고 나선 전쟁고아의 모습 등도 진한 실감으로 와 닿는다. 전쟁의 비극과, 그 비극을 떨치며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삶의 양상들이



교차되면서 戰後 북한의 실상을 가장 편견 없이 반영하고 있다.

때로 장황하고 엉뚱한 비약을 보이기도 하지만, 풍부한 상상력으로 채색된 마커의 글도 50년대 후반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짐작하는데 도움을 준다.

비록 30여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모습을 정직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극복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귀중한 자료 구실을 해 줄 수 있을 듯싶다.

사진전문출판사로 첫발을 내디딘 도서출판 눈빛의 처녀작이다. 파리 제5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金武慶씨가 본문의 번역을 맡았다.

눈빛/A5변형/186면/5500원